

베드로전서 강해

세상을 이기는 자유인 (벵전 2:11~17)

반태호 목사 / 2004년 06월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찰스 콜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고, 명예 중에 명예였던 그는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찰스 콜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저술했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훗날 형기를 마친 후에 기자회견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후회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경우도 성자로 존경받을 무렵에 자신의 내면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록'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은 '성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와의 전쟁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원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것은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가족과 친구가 서로 적이 되는 전쟁이 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끔찍한 전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참혹한 전쟁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짓되고 죄된 마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펔전의 말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죄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중적인 또는 다중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전쟁을 겪는 상황은 성숙하고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 부흥의 아버지였던 무디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무디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의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25절을 보십시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또는 예수를 믿되 미숙한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었고, 사도 중의 사도였던 바울의 노년의 기록이며,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갈등을 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 패역한 세대속에서
거룩한 소수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이
세상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라나 왕의 자녀로도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소수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즉 절제하고, 근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가 품는 정욕이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에서 패한적이 없는 군인 중의 군인이었습니다. 또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시인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 때 육체의 정욕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대 선배가 겪은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으로 타락하고 방종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몸으로만 죄를 짓는 문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2천년 전의 철학자들은 '육체와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육체는 어차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혼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혼은 육체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육체가 범죄하면 영혼도 질식합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육체의 소욕도 여전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이 죄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해서 그럭저럭 넘어가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갈 5:21)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순간 하늘의 축복과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땅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 자고싶고, 더 먹고싶고, 더 사치하게 이기적으로 정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였습니다. 성경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 그였습니다. 그런 삼손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육체의 정욕이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에게도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를 너무 편하게 두면 안됩니다. 조금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는 잘 가꿔놓으면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여 쾌락의 도구,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충만한 사람도 방종하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육체가 충만하면서 성령충만한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꼭 쉬자고 생각할 때를 살펴봅시다. 피곤하다고 새벽기도를 빠뜨리면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오히려 너무 피곤해서 간신히 새벽기도를 드렸을지라도 기도가 끝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드리고, 사랑하는 일에 드리고, 헌신하면,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를 이기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육체를 제어할 때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비록 금식하고, 육체를 제어하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때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내부의 적도 있지만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이 외부의 적이 곧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지켜보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비난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하더라도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비난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건강하고 성령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악의에 찬 소문이 돌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나 노예나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신의 수준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2천년 전에는 이런 의식은 제도화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인륜과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남여가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는 것을 문란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음란한 일들이 뒤따랐던 이방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찬을 식욕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난은 터무니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인식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로 변호하지 말고 삶으로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강력한 선교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훼손을 받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에 실망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입니다. 영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줄고, 모슬렘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모슬렘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슬렘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나가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저들보다 나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종교에 속한 이들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을 우리의 행실로 막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데에는 기독교인의 선한 행실의 공이 컸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상대방도 세워주고, 축복하게 되지만 자신의 영혼도 기쁨을 얻고 세워지게 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즐거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런 미소와 한마디의 말이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요즈음 같이 삭막한 세상에서 스쳐지나가는 이웃을 향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삶을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보다 더 좋은 선교의 도구는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죄된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육체가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법 중 첫번째 것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할 만한 대상이 아 니라해도, 그것이 인간이 세운 제도로서 악을 품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순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오만불손하거나, 교만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들 때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버텨야 합니다. 그런 상황 아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라면 순교까지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정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따를 수 없다고 해도 법에 순복해서 감옥에라도 가야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태도입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것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이 우리를 심각하게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고 순교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 의식과 윤리를 요구하고, 이런 류의 것들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세상의 제도에 순복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한 성도이자 세상에서의 일등 시민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이유는 세상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이 훼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천년 전 초대교회 당시 로마 당국이 가장 원했던 것은 로마제국의 유지를 위한 평화와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 제도에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제도를 따라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셨지만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그 안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금도 내고,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일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 제도를 피해 이익을 얻기 위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 써야만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비난의 대부분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비난을 위한 비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하나를 보고 자신들의 잘못 열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선을 행해서 그들의 무지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십시오. 자신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언젠가는 어처구니 없게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몹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속박당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권세 아래서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유가 주어지면 잘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는 잘 사용할 때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악한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땅에서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거룩과 순결에 힘을 쓰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순복하는 태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